죄와 율법
(롬 3:19~20)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제 말씀 끝에 예고를 해 드린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요,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려야 하겠다 생각해서 대충 예고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주제를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또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실지로 말씀을 한 주제 한 주제 계획에 따라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죄와의 관계에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죄를 한번 다시 상기시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어거스틴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제2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율법의 의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라서 죄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어제 말한 죄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처소인 공중이 있고, 그 공중의 위쪽으로 겹쳐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겹쳐서 땅이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우리 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바로 이 공중에 있는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접근을 한 겁니다.
하와가 먼저 마귀를 만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공중에 있는 마음에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로 살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몸에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만 아담이 하는 일을 보고 하와가 하는 일을 보고 또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이 하는 사업이 잘 못됐다고 하면 -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만 하여가 말을 하

자면 - 돈이 잘 안 벌리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상황을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판단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아담의 마음이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이 잘 안 벌리는 이 상황이 어떤 거지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지요?' 좋다 나쁘다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돈 안 벌리는 것, 내가 계획한 거야. 왜냐하면 두 수 세 수 열 수를 내다볼 때 지금 돈이 안 벌리는 게 좋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안 벌리면 무조건 안 좋다고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젠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등을 돌려버리고 판단의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일과 만나는 사람이나 어떤 건수들에 대해서 생각의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본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수입해 들여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입해 들여오는 게 아니라 생각과 판단의 자급자족의 형태가 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급자족의 형태로 통치자가 돼버립니다. 통치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오늘 문맥에 따라 내리자면 판단의 자급자족자가 통치자입니다.
내 생각만으로 만족하는 자, 생각의 자급자족하는 자가 바로 통치자입니다.
스스로 통치자가 돼서 통치영역을 이제는 몸과 몸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삶으로 자기가 도둑질을 해서 채택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에 앉아서 내 인생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전해 보이지만, 건전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통치자 됨을 도둑질한, 내 몸과 몸을 중심으로 한 삶을 도둑질한 죄악의 상태가 벌써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네 복덕방에 모여서 장기 두면서 소일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도 장기 두시면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일본 대지진 사건 리비아의 카다피 사건까지 전부 말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셔도 판단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혼자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통치자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도 죄악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죄가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몸에 주어지는 상황이 풍랑이건 순풍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냥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몸의 상황들을 다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평강하게 따라가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내가 판단의 자급자족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통치영역으로 이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몸이 생명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그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생명이에요. 목숨을 넘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는 게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 속에 어떤 악한 궤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통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은 종이 되었습니다. 몸에 종노릇하고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좌지우지 흔들리고 격랑을 일으키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모순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모순이 뭐냐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노릇이라는 게 꼭 마약, 담배, 알코올, 도박 등에 매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통해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게 다 이미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통치자라는 착각에 의해서 되는 건데 현실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순 속에서 싸우면서 평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의식으로 계획세우고 소원하고 비전을 갖고 그런데 종노릇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를 죄와 연관해서 알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살펴보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루시퍼와 한번 비교해 봅니다.
루시퍼가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모반을 일으키면서 쫓겨난 자 아닙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께 배반해서 사탄이 된 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루시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겠다고 대든 겁니다. 자기도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겠다고 해서 사탄이 채택한 통치영역이 뭡니까?
바로 공중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성공한 것이지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탄의 죄악성이 하나님을 모반하고 하나님과 동등성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한 면에 있어서는 인간이 사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루시퍼는 심부름꾼인 천사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동등 됨을 취해서 자기의 통치영역으로 삼은 것이 뭐예요?
몸과 몸을 중심으로 한 이 삶의 영역입니다.

자, 이런 상태와 예수님을 비교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이셨던가를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원래 같아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동등 된 분인데-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천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판단하셔도 이 분은 죄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죄인을 바라보실 때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위로 하나님을 보시면서 나에 대해서 '태승철'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판단하셔도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 됨을 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악합니까? 루시퍼와 인간을 먼저 비교해 볼까요?
인간이 사탄의 우두머리보다 더 더러워요. 왜 그럴까요?
루시퍼는 심부름꾼으로 지음 받았다가 배반합니다.
심부름꾼이 배반한 것과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가 되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더럽고 추악합니까?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 요압 장군이 늘그막에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의 명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합니다. 그 신하가 배반한 것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배반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사악합니까? 단순한 배반에다 부모거역까지 더한 압살롬의 배반이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탄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함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모습과 비교하면 그 상대적인 평가에서 감히 비

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루시퍼보다 더 악한 게, 루시퍼는 영체 아니었습니까, 영체로서 몸을 입고 있는 인간보다 강했어요, 강했는데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했으니까 더 약한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동등 됨을 취한 것보다 덜 교만한 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동등 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루시퍼처럼 영체도 아니고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했으니까 그 상대적인 추악함이라는 것은 심연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끝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루시퍼를 대적자로 여기시지만 루시퍼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신 분 같아요.
죄질을 따지면 사탄보다도 더 악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눈처럼 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등 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죄 용서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대한 희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복음사건을 대할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다 동원돼서 일으킨 사건이 복음사건이고 죄 사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동원돼도 할 수 없으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자거나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도대체 무슨 죄를 사한다는 건가?' 그러지 않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면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와서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하면 '뭘 사면한다는 겁니까?' 하고 대들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누구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대드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율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려고 주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율법이 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긴 자는 그 형벌이 죽음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문제 삼기 이전에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모세에게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문제 삼기 전입니다 -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속제를 하면 죽인 것으로 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제 아이에게 외출을 하면서 '너 TV 보지 말고 숙제해라, 만약 아빠 엄마가 없다고 TV를 볼 경우에는 돌아와서 매를 열 대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출한 동안 TV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TV를 만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TV를 보고 싶어서 아빠의 말을 어기고 유혹을 못 참고 TV를 봤다면 열 대를 맞아야 되지만,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네가 좋아하는 곰 인형을 갖고 오면 곰 인형을 열 대 때린 다음에 너를 때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 줄게.'
그러고 나면 TV 안 볼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범죄-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으리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자범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양을 잡아서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번제로 살라버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아예 지키려고 하기도 전에 율법과 동시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시 될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의 몸으로 이루어진 삶의 영역을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나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배신과 모반과 도둑질의 이 죄악상이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인 모세 때까지…
아담 이후부터 주전 1500년대까지 그런 인간의 완전히 부패한 심성을 개선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죄악상이 그대로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상태에다 대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어겼는데 아담 이후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무슨 수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못 지킬 것을 아시니까 속죄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지킬 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지금 나는 내 몸을 붙잡고 내가 내 몸을 다스린다고 착각하면서 통치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네가 네 몸을 붙잡고 조종하고 관리하면서 몸으로 이루어진 이 땅위에서의 너의 삶을 경영하겠다고 하는데 율법대로 한번 움직여 보아라'
이런 거지요, 한자 연습하는 노트를 보면 점선으로 희미하게 한자가 쓰여 있고 그 위에 희미한 선을 따라서 글씨를 쓰면서 한자를 익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볼펜을 들고 있고 붓을 들고 있듯이 네 마음이 통치자가 돼서 네 몸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종노릇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좋다, 내가 네가 네 마음대로 몸을 움직인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한번 네 몸을 붓 삼아서 볼펜 삼아서 하늘 천(天)자를 써 봐라, 율법을 내가 돌 판에다 새겨 놓을 테니까 네 몸으로 네 삶의 현장에서 그 돌 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글씨를 따라서 그대로 네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해 보아라"

그런데 자꾸 하늘 천(天)자에서 비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비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뚤어져 나갈까? 아니 하늘 천(天)자를 그대로 따라서 써나가면,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내 행동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내 죄를 보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될 자로 율법 앞에 다가설 때 우리의 상태는 타락 이후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더욱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복을 받기 위해 따라 해 보려고 따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속에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 스스로 통치자가 돼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인데 이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복 받겠다고,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다가설 때 마음 자체가 이미 내가 통치자가 되어있는 죄악 된 구조를 발동시켜야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 된 구조를 발동시키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주일학교 교사하시던 분 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교육하시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질을 겨우 겨우 하면서 라면을 먹는데, 보통은 라면을 젓가락으로 푹 집어서 '후~' 불어서 식힌 다음 입에 넣고 입술과 혀와 이를 동원해서 끊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꼭꼭 씹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라면 한 두 가락을 입에 넣고 그걸 계속 입술로 빨아서 끌어 당겨서 이빨은 대지 않고 라면발의 한쪽 끝은 목구멍으로 그냥 씹히지 않은 채로 넘어가고 있고 그 라면발의 끝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입술로 빨아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 맛있다'고 한답니다.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도 고쳐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라면보다도 두껍고 굵은 스파게티를 주었다는 겁니다. 스파게티를 줄 때의 엄마 마음이 뭐였겠어요, '한번 해 봐라, 네가 라면을 먹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스파게티를 먹어 보아라.'였겠지요. 스파게티 가락이 목구멍에 걸리니까, 두껍고 굵고 질긴 게 들어가 버리니까 '웩 웩'할 수밖에 없지요. 이를 대지 않고 그대로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웩웩' 해서 목구멍에 걸린 것을 꺼내 주었더니 끊어지지 않은 채 스파게티 가락이 그대로 나온 거지요.
고쳐졌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세요.
엄마의 마음이 스파게티를 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이 죄냐'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네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무슨 탈이 생겼느냐,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적인 성향,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자, 스파게티를 준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씹지 않고 한 가닥 한 가닥 삼키는 먹기의 습관을 통해서 스파게티까지 잘 먹었다면 오히려 더 큰 일인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일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봐, 엄마! 엄마가 자꾸 나보고 라면 먹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랬지만 내가 스파게티까지 너끈히 먹고 있잖아?' 의가 더 충만해 지지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스파게티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잘못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잘못 돼있는 구조 안에서 율법으로 주신 스파게티를 너끈히 먹어치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 통치자로서 살아가면서 네 몸을 움직이고 네 삶을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율법을 못 지킴을 통해서 너의 통치자 된 죄 됨을 깨달아라'고 주신 건데, 이 잘못된 통치자의 구조를 가지고 복 받겠다고 내 몸을 움직여서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더 큰 일 아닙니까?

자, 율법의 의미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키라고 주신 거지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은 '지켜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너희가 너희 몸과 너희 몸을 중심으로 한 삶의 주인이라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걱정하고 계획하면서 이끌어 간다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조차도 통치권자로서 이미 선악을 판단한 다음에 너희의 상황이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개선돼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정도로 잘난 통치자라면서? 그러면 한번 너희가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고 너희가 원하는 복이라는 복은 다 줄 테니까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잘났으면 너희 몸을 움직여서 내가 말한 율법의 행위대로 자습서에다 하늘 천(天)자를 써보고 땅 지(地)자를 써봐라!'
그리고는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쳐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겉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자기 선을 결정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1,2,3계명을 지켰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제쳐 놓고… 심중에 있는 것들은 제쳐 놓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고… 왜?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배반함, 모반함, 도둑질, 예수님과 비교할 때 사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은 뭐예요?
율법보다 더 강화됩니다.
친구에게 욕만 해도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이 뭐예요? 율법이 스파게티라면 산상수훈은 가래떡이에요.
가래떡을 어떻게 씹지 않고 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가 된 성향을 갖고 산상수훈 앞에 서게 되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통치권자가 되어서 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몸을 다스리면서 산상수훈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방법이 뭡니까?
친구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욕만 해도 바보라고 해도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내가 이제는 이 몸과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살아남으려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죽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죽어 나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을 중심으로 한 삶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빠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연합하게 될 때에 복음사건이 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준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몸과 내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주권자요 판단자요 통치자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내 몸에 대해 내가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돈 안 벌리는 상황이 주어지면 십자가 이전에는 '아, 이건 잘못된 것이야'라고 판단하여 걱정을 시작하고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난 다음에는 '안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되려는 순간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경영자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르쳐주시고 행동해야 될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지배하겠다고 통치영역으로 삼았다가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못 이루어요. 그런데 율법을 못 이루겠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내가 더 이상 주권자 노릇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 몸을 움직여서 행하려면 내가 주권자가 되어야 되니까, 주권자 입장에서 율법을 행할 수 있지요, 내 몸을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 '그 주권자 됨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주권자가 아니라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율법을 따라 움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겠지,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는 더 이상 내 몸의 주권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신다 이겁니다.
이루실 일이 있으면 당신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주권자 되시니까 당신이 내 몸을 움직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준 모세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대표적으로 이 제목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의 여덟 가지 습관', 이게 다 율법입니다.
내 삶을 내가 생각하는 선한 방향으로, 내 판단에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경영해 가기 위하여 이런 율법들을 찾고 지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시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율법이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일곱 가지 방법', 기도해라, 충성하라, …해라, …해라 …

여러분 교회가 잘되는 것은 충성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죄악에서 진심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 요소 요소에서 충성할 일군들을 쓰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충성이라는 열매를 왜 율법으로 바꿔 버립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으면 주어질 선물인 성령의 충만을 왜 율법 조항으로 바꿔 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다 은혜일 것을…
내가 통치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될 것을 왜 십자가의 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면 모든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힐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다 율법으로 바꿔 버립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스파게티예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하면서, 산상수훈의 율법과 모세오경의 율법을 대하면서 '내가 이대로 지키며 살 수 없으니 이제 나의 통치권을 포기하자'
그런데 습성이 되어서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일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생각하겠어요. 대속함과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권자 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악과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액션의 축복, 행동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너무 귀한 겁니다.
거울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통치권자가 되려는 더럽고 추악한 모반의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사도바울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늘 율법 앞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내가 통치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

나님 앞에 진작 항복함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복음이 허락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율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 들려지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통치자 됨을 벗어버림을 통하여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순간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